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3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인천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55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더블 남결승〉	3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1	20 웰컴 투시월드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15 사랑의가족 45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20 MBC 정오 뉴스 30 문화四色	00 인천 2014 특집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	30 뉴스특급	00 여기는 인천 〈사격 세팍타크로 결승 등〉		20 여성토론위드	30 애니왕국
2	40 직언직설	- (시ㄱ세ㄱ니그또 같ㅇ ㅇ/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2014인천아시안게임 〈여 권총 25 m 등〉	00 인천 2014 특집 SBS뉴스 10 인천 2014 사격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 날(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유후와 친구들 55 여기는 인천	_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4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여 핸드볼 예선 대한민국 vs 태국〉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피	30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밥상의 신〉(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5 생생 정보통	20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여유도 메달결정전〉	30 인천 2014 〈펜싱〉
7	20 웰컴 투시월드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30 일일드라마 〈뻐꾸기 둥지〉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0 여기는 인천 〈남계영 400/200 결승 등〉 55 위기탈출 넘버원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20 MBC 뉴스데스크	10 인천 2014특집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특별기획 〈야경꾼 일지〉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0	0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7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라이벌 매치 압도적7	50 TV 책을 보다(재) ①:30 T타임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2014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55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인천 2014 특집 나이트 라인 ①: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코코몽2(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원더 볼즈(재) 09:20 출동 슈퍼윙스(재) ()9:35 빼꼼

09:40 부모 〈부모광장〉 10:10 EBS 특강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탄자니아〉(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생활백과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3:50 사이틴(Sci-teen)

14:00 두키 탐험대 14:15 우낭탕탕 아이쿠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코몽2 15:00 신다는 요정 학교 15:15 지구를 지켜라 15:30 올리비아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15:50 피터 래빗 〈본디아 동티모르〉 21:30 한국기행 〈내포 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 〈생과 사의 강 브라마푸트라〉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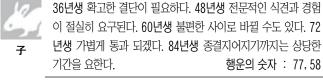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 〈수학 I A형〉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영어-독해〉 13:05 〈국어A형〉 01:40 수능특강 light 02:30 〈영어-듣기〉 14:00 〈물리 I 〉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사회〉 15:40 〈생명과학Ⅰ〉 10:30 04:10 05:00 〈한국사(상)〉 16:30 〈지구과학 I 〉 11:10 〈수학 I A형〉 17:20 05:50 2013 포스 〈윤리와 사상〉 11:50 06:40 압축탐스런 〈물리 I 〉 18:10 〈법과 정치〉 〈문학 I 〉 19:00 07:30 2014 포스 〈생활과 윤리〉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영어-듣기〉(재) 21:00 〈수학 A형〉(재) 09:10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10:00 뉴 탐스런 〈수학 I A형〉(재) 10:50 2013 포스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EBS플러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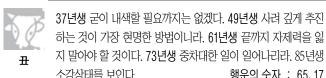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국어4-2〉 07:30 나의 성공비결 〈국어5-2〉 16:20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국어6-2〉 16:50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10 TV 중학 〈국어①②〉 〈전과목 5-2〉 〈화학 I〉 09:50 〈수학 1(상)〉 18:00 TV 중학 〈문학 3〉 〈역사 1〉 18:40 〈비문학 3〉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수학1(상)〉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등업신공 13:10 〈수학2(상))〉 21:40 한국기행 〈과학2(상)〉 22:00 등업신공 13:50 〈수학3-2〉 〈수학2(상)〉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14:30 15:20 중간학업 성취도평가 대비특강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국어3-2〉 24:00 백점공략 〈수학 1,과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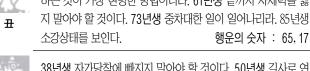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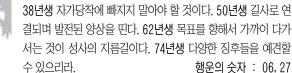
9월 22일(음 8월 29일 丙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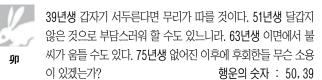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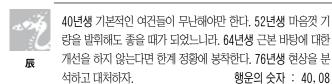
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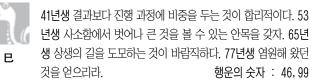














42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을 안게 된 다. 54년생 이치를 터득해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66년생 뜬구름 잡으러 하지 말라. 78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 를 낚게 해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74



43년생 세부적으로 임해야만 무탈 하리라. 55년생 기초가 부실 하다면 극한 환경에 이를 수도 있느니라. 67년생 평상시의 마음 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79년생 진중한 태도로써 일관 한다면 성사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68



44년생 반복적인 확인만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56년생 소 금 팔러 갈려니까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양호한 성과를 거 두면서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80년생 파격적인 방도로 전환해 보자. 행운의 숫자 : 81, 35



45년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길사가 기다리고 있도다. 57년생 긍 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감을 갖자. 69년생 다자 관계 속에서 입장의 차이가 클 것이다. 81년생 중복 되어 있어서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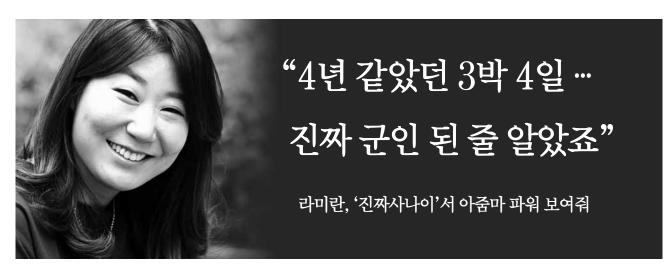


46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아니 되느니 라. 58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70년생 도 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82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 경을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96,88



47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 느니라. 59년생 가변적인 형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83년생 재물이 생기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5,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3박4일인데, 4년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군대에 갔다. 출산하고도 여전히 날씬한 '미씨족' 이 아니라 불어난 살들과 바닥을 치는 체력 때문에 숨이 차는 일이라면 질색인 아줌마. 하지만 MBC TV '진짜사나이-여군 특집'에서 배우 라미란(39)이 바로 아줌마의 힘을 보여줬다.

11세 아들을 둔 우리 나이로 40대, 작은 움직임에도 관절이 욱신거리지만 '생존본능'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근성 있는 아줌마 라미란의 모습에 출연진도, 시청자도 '군대체질' 이라는 칭찬(?)을 했다.

시청자에게 별미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가 대박 이 나도 너무 크게 나는 바람에 MBC도 깜짝 놀란 '진짜사나 이-여군특집'이 21일 막을 내린다.

"집에 돌아와서는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처음 3~4일은 정말 손가락도 꼼짝 못했고요. 온몸이 멍투성이에 체력이 완전 히 방전됐으니까요. 거기 있는 3박4일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곯아떨어질 것 같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런 지 하루 1~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화장실에서 큰일도 못 봤 고요."

시청자로서도 능히 짐작이 되는 '후일담'이다. 그야말로 '난 데없는 군대 훈련'에 던져져 '봉변'을 당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 이다.

"어휴, 처음에는 그럴 줄 전혀 몰랐죠. 평소 '진짜사나이'를 잘 보지도 않고 있었고, 제작진에게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오시 면 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다른 예능처럼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심지어는 나만의 캐릭터도 잡아야 하나 고민을 했으 니까요.(웃음) 그러니 현장에 가면서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싸 오지 않았다는 한가한 소리를 했죠.'

라미란은 방송에서 보이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짜 고 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쉬게 하면 그렇게 리얼한 표정이 절대 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작진도 그걸 잘 아는 거죠. 저는 그래 도 다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오프닝 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웬걸, 그냥 저희를 현장에 던져놓고 가더군요. 그래도 설마 촬영하다 '컷!'을 외치며 쉬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캐릭터고 나발이고 무 조건 시키는 대로 하자고 결심했죠.(웃음)"

라미란은 시종 자신의 체력과 관절을 염려했지만 사실 훈련

은 가장 잘 받았다.

"제가 순발력이 있어요. 눈썰미도 좀 있고요. 뭐든 빨리 배우 는 편이에요. 각개전투나 화생방 모두 교관이 시키는 대로 하 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보고 '알고 보면 북파공작 원'이라고 하더군요.(웃음) 저도 훈련받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내가 군대 체질이야'라고 3번 정도 생각해본 것 같아요. 하하."

최지나, 맹승지, 혜리 등이 눈물, 콧물 쏟아내며 숨이 넘어가 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낙오한 화생방훈련에 대해 라미란은 "뛰는 것보다는 낫다"며 웃었다.

"군대 문제가 워낙 민감한 시기에 방송되는 것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욕만 먹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 니까 놀랍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심각한 문제 들이 빵빵 터져 민감한 때에 저희의 어수룩하고 웃긴 모습이 방송을 타면 안 된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 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당시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매번 울어요."

라미란은 올초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와 tvN '택시' 에서 뽐낸 이른바 '19금(禁) 입담'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를 차지하는 등 예능계를 후끈 달궜다. 이번 '진짜사나이'에 발 탁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녀는 "나는 배우인데, 예능으로 주목받은 것 같아 좀 조심 스럽다"며 "배우로서도 이렇게 주목받아야할 텐데…"라고 말 했다.

연극·뮤지컬 무대에만 서다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출연하면서 영화에 진출한 그는 TV드라마에서 얼굴이 알려지 면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게 됐다.

'짝패' '패션왕' '더킹 투 하츠' '마녀의 연애' '막돼먹은 영애 씨' 등의 드라마에 잇달아 출연하면서 연극판에서 쌓은 내공을 과시했고, 영화에서도 덩달아 주가를 날렸다. 그는 현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빅매치' '워킹걸' '국제시장' 등 네 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네 편의 영화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

"작품이 많은 것 같지만 다 비중은 적어요.(웃음) 그래도 지 금 너무 좋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정도만 계속 유지했 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라미란은 현재 KBS 2TV 수목극 '아이언맨'에도 출연하고 있다. 무정한 사기꾼 박에리사 역이다. /연합뉴스

'별에서 온 그대' 美서 리메이크 된다

소니픽쳐스와 조율 … "원작 포맷 살릴 것"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사진)도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 지상파 ABC 채널을 통해서다.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얼마 전 ABC 방송국에서 파일럿 오더를 받았으며 현지 제작사인 소니 픽쳐스와는 세부 계약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B엔터테인먼트의 문보미 대표와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EP(executive producer) 자격으로 미국판 리 메이크 작업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난 2월부터 미국 리메이크를 준비해왔고, 좋은 파트너들과 한국 드라마를 미드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되어 감 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내년 초 시즌 오더까지는 조심스 러운 입장이고 시즌제 미국드라마가 되도록 미국 쪽 제작사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에서 온 그대' 미국 리메이크에는 미국 메이저 제작사 소 니픽쳐스 텔레비전이 제작사로 확정되었고, '쉴드' '엔젤' '뱀 파이어 다이어리'등을 집필한 리즈 크레프트와 사라 패인 작 가가 대본을 맡아 현재 파일럿 대본을 집필 중에 있다고 HB엔 터테인먼트는 밝혔다.제작사는 "파일럿 대본작업을 마치는대 로 올 하반기 파일럿 제작 및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캐 스팅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미국판 '별에서 온 그대'의 남녀주인공 이 름은 제임스와 라크이며, 미국판은 한국 원작의 포맷을 살려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과 스타의 사랑을 그린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별에서 온 그대'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는 왜 항상 세상을 구해야하나, 한 여자만을 구하면 안 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은 이야기에 기반해 미 국 리메이크도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SBS는 여세를 몰아 '별에서 온 그대' 특별기획전을 기획하 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해 두달간 10만여 명 을 모았다. 현재 이 전시회는 일산킨텍스로 옮겨와 진행 중이 다. /연합뉴스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소속사 대표 공개 비판

"피같은 돈 모두 어디로 갔나"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더 문준영(25)이 소속사 대 표를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실명을 거 론하며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 망이다.

문준영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믿고 사랑했던 스타 제국 신〇〇 사장님, 떳떳하십니까"라며 "아홉명 아들들이 코 묻혀가며, 피 묻혀가며 일해온 수익, 자금, 피같은 돈은 다 어 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라고 촉구했 다.

그는 "신 대표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다. 나는 뚜껑 열렸다. 원형 탈모부터 우울증까지 안 겪어본 게 없다"면서 억 울함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괜히 참고 살았다. 돌아오는 건 쓰잘데기 없는 욕

설, 폭언과 나를 가둬둔 우울증이었다"면서 "지금부터는 내 사 람들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준영은 끝으로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 눈으로 본 세상, 눈 물로 느낀 인생. 모두 소통하고 대중에게 알리겠다. 이제 그만 되돌려 드리겠다. 내일부터 하나씩 자료 올리겠다"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그의 글은 삭제된 상태 다.

소속사 스타제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국의 아 이들은 개별 활동이 많고 멤버 수도 많다보니 월별로 정산을 하 고 있지만 개별 수익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 "다른 멤버들과도 이야기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

다. 2010년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은 박형식, 시완, 황광희 등의 멤버를 중심으로 가요계 안팎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다. /연합뉴스